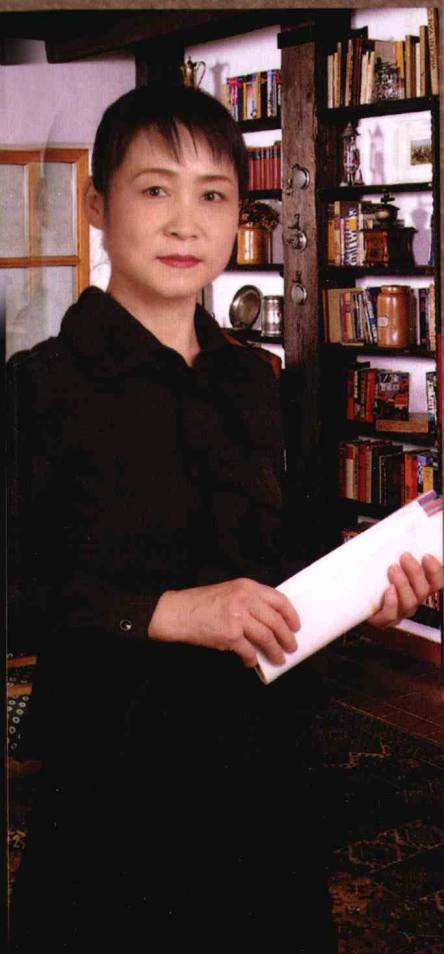


리권복기자문선

느 로 체 음 체 형



연변인민출판사

늘 처음처럼

리현복기자문선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명근

책임교정: 최순란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李连福记者文选: 朝鲜文 / 李连福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12

ISBN 978-7-5449-0498-8

I. 李… II. 李… III. ①新闻-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②散文-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③随笔-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1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07943号

李连福记者文选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2.75 字数: 28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498-8 (民文)

版次: 2008年12月第1版

2008年12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2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미흡한 숙제를 바치면서

—머리말을 대신하여

“30 이립(三十而立)”이라지만 나는 40의 “불惑지년(不惑之年)”에야 기자생활을 시작한 늦깎이기자다. 그러나 나는 항상 행운스럽게 행복스럽게 생각하고있다.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과 행복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고있는것이다.”고 말했듯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과 행복은 곧바로 신문사업을 사랑하는 나에게 연변일보사의 선배님들이 “기자꿈”을 이룰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주신것이다. 하기에 나는 이 책을 삼가 나의 인생의 스승이시며 신문사업의 원로이신 여러분들께 드린다.

나를 신문과 접촉하게 하고 신문에 어섯눈을 뜨게 한 첫 계몽스승은 나의 아버지시다. “옷깃이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나는 리흥광지대에서 전업하여 1948년 《동북조선인민보》초창기부터 신문인쇄사업에 몸담그신 아버지가 계셨기에 《연변일보》와 혈연적관계를 맺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보통로동자시였지만 신문사랑과 자식사랑은 각별하셨다. 날마다 아침 퇴근길에 방금 인쇄한 《연변일보》를 갖고 오셔서 우리 자식들에게 보이곤 하셨는데 국제국내의 특대사건과 뉴스는 손수 읽어주시기도 하셨다. 이리하여

나는 걸음마를 타기 시작한 시절부터 신문지의 유묵냄새가 모유 냄새처럼 향긋하게 느껴졌고 소학교, 중학교 학창시절에는 한손에는 수저를, 한손에는 신문을 들고 보면서 아침밥을 먹는것이 굳어진 버릇으로 되었다. 고중을 졸업하고 광활한 천지에서 재교육을 받을 때에는 아버지께서 때때로 보내주시는 《연변일보》를 받아주면 오랜 리별후에 상봉하는 친인마냥 반가웠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신문에 대한 사랑으로 하여 나는 《연변일보》와 익숙해졌고 친근해졌으며 신문사업을 동경하게 되었다. 때문에 로동자모집시 연길시의 궤장다는 단위에 갈 기회도 있었지만 단연히 연변일보사를 선택하였다.

아버지가 나의 계몽스승이시라면 연변일보사의 여러 선배님들은 내가 신문사업에 몸을 담그도록 인도하고 신문기자로서의 품성과 기량을 닦도록 이끌어주신 입문스승들이시다.

기나긴 인생행로에서 우리가 걷는 걸음은 수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관건적이고 중요한것은 왕왕 몇걸음이다. 내가 “학력”과 “신분”이란 걸림들에 걸려 방황하고있을 때 선배님들이 통신학부공부를 하라며 등을 떠밀어주고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셨기에 나는 5년간의 연변대학 통신학부 학습을 우수한 성적으로 끝마치고 일개 후근사업일군으로부터 교정원, 편집일군, 기자에로의 전환의 중요한 몇걸음을 온당하게 내디딜수 있었다. 이것은 단지 나 개인의 념원과 열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였지만 바로 여러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방조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수 있었으며 그 이후 농촌부, 경제부 기자로 활약하면서 보다 빨리 상응한 업무지식소양을 갖추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것들을 마음속깊이 아로새기고있기에 나는 여러 선배님들에 대한 “결초보은(結草報恩)”의 심정을 사업에 대한 책임과 열정으로 바꾸어 늦깎이기자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 여러 선배님들을 열심히 뒤따르고 본받는 한편 선배님들의 가르침

대로 홀로 뛰고 보고 묻고 쓰고 하는 모지름속에서 제1차산업, 제3차산업 그리고 경제영역의 다종다양한 뉴스를 독자적으로 비교적 능란하게 처리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에 노력하였으며 개혁개방의 새로운 형세하에서 개혁과 발전의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며 작은것에서 큰것을, 평범한데서 비범한것을, 한개 점에서 전반 국면을 보아내며 매 시기의 중점, 열점, 난점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10여년래 농촌 새 현상, 상업구조변화, 사회경제생활, 소비류통, 금융재테크 등 여러 면의 관련기사 수천편을 펴냈는데 그가운데서 근 20편이 국가, 성, 주 급 상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미숙한 글들이 많고 영근 글들이 적어 “한번 더 다듬었다면” “지금 다시 쓴다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투자유치성과를 다룬 “오동이 푸르르니 봉황이 날아든다”는 기사는 연길시 국부보행거리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고 일면적이였다. 때문에 “기자생활에 대한 총화도 할겸 책을 묶어보라”는 선배님들의 조언에도 오래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여러 스승님들에게 미흡한 숙제라도 바치고 가르침을 받아보자”고 마음을 다잡고 책을 펴낼 용단을 내리게 되었다. 오늘까지 나의 성장일로를 지켜봐주고 부추겨주신 선배님들과 동업자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편달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아이를 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막상 책을 펴내려고보니 글들이 여의치 않은지라 책이름선택이 마땅찮아 고심하다가 2006년 제7기 기자절을 맞으며 쓴 수기의 제목 “늘 처음처럼”을 책이름으로 아귀를 지었다. 한것은 내가 여러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따라배우려는 마음이 “늘 처음처럼” 변함없고 신문사업에 대한 애착과 책임심이 “늘 처음처럼” 스스로를 채찍질하고있기때문이다.

나의 기자문집이 해별을 보도록 물심량면의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고마운분들 그리고 원고심열과 편성에 로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변인민출판사 여러 부문 선생님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전반 자료 정리를 도맡아준 귀여운 딸애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지자로부터
2008년 9월 11일
연길에서

차 례

미흡한 숙제를 바치면서	1
--------------------	---

농촌편

달래아줌마들 봄소식 듬뿍	3
치부길 띄우는 연하촌녀성들	5
샷김매기대오—농촌 새 현상	8
승용차 팔아 교사건축에 지원	10
가정장부 앓혀 살림을 굳건히	12
남구촌—아마 팔지 못해 근심 태산	14
조양천진의 차마을—동풍촌	16
산골에 터잡은 젊은 부부	18
사료—양돈업의 중심화제	20
농업물자가격 인상, 구매력 왕성	23
앉아서도 대도시시장을 간다	27
농촌시장 건설, 농촌경제 활성화	30
파릇파릇 산나물 봄맛 살린다	34

상업편

시장점유에 이름난다	39
향수—남성들도 서먹하지 않다	41
주내 상품류통시장 규모화, 다원화	43
매국 뻔 신수리쟁이	46

“탕후루”—해불만한 장사	48
주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50
국고권—민간투자의 총아	52
주택건설붐 타고 장식재시장 뜬다	54
과일장사로 부자꿈 이룰수 있나	57
개체업주들 끈끈한 저력으로 시장 주름잡는다	60
브랜드전략으로 양파시장 선도	65
여름남새가격—폴짝폴짝 개구리뿔	69
민영경제 연변경제발전의 동력	71

사회생활편

이미지 흐리우는 간판언어	75
신수리업 외지인의 뒤편가	78
그릇된 판촉행위 지방경제발전 저애	81
달, 월병 둥글고 시장도 둥글어	85
상업망건설에 주는 도시미화건설의 영향	90
석탄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93
자가용시대 얼마나 먼가	95
승자로 살아가는 녀인들	98
랭면과 우육면 그리고 특색경제	101
음력설소비 다변화	105
영상문화상품 안방서 인기 톡톡	108
소비자, 스스로를 잘 챙겨야	111
가계부 어릴 때부터 익혀둬야	114
전통음식 관광 및 대외교류에 이채를	117
전보시대는 가고 데이터시대 도래	120
회비가 엇갈린 파가이주	124

외화매매시장 즐거운 “장터”	127
장례소비시장 적정가격 필수	130
가족사랑 예서 무르녹는다	133
연길국자가상업의 어제와 오늘	137
핸드폰시장 혼란 언제면 두절될가?	140
우리네 설도 더욱 둥글어졌으면	144
월드컵에 울고웃는 판매시장	147
사회보장체계 확립, 도농간 수입증대차이 해소해야	151
사회공공봉사업종 서비스문제 여전	155
개혁개방 30년의 격변	161
창업스토리	164
칼국수로 빚어가는 창업의 무지개꿈	167
브랜드로 자리잡아가는 “남산”두부	170
외화창출의 선두기업—장흥	173
미지의 개척길 험난하여도	177
뛰어난 창의력으로 새 영역 개척한 녀호걸	180
“숨옷의 파스함” 만가정에 전하려고	184
사천신선로와 맺은 끈끈한 정	188
차별화창업의 기틀 마련코저	191
올바른 시장선정으로 기업활로 개척	195
“두발로” 가는 억만장자의 길	198
미증유의 호기-동북아의 새별로 거듭날터	201

인론, 중술 편

업수이 볼수 없는 3전	209
시장이 “감자지짐”이 주는 계시	211
가정재산투입 맹목성 삼가해야	214

고물시장에 가 늦게 산다	216
정전, 단수와 알 권리	219
우리 먹는 기름튀기음식 안전한가	222
WTO가입후-류통령역에서의 상업구조조절 급선무	225
폭설이 남긴 여운	229
광고시장정돈 시급	232
경영리념 내면에 승부 건다	236
거리화장실건설과 상업문화	239
진달래가 사라진다	242
“편리” 보는 일 더 편리하게	245
가짜증명서 비법제작 엄단 요청	247
성숙된 소비자로 되려면	250
“답발도 명물이다”	253
량식시장 다원화기제 도입, 활력 찾아	257
공중장소 소비자안전 얼마나 담보되는가?	260
명절소비에 푸르름을 기해야	263
마음의 “산”을 넘자	266
축구심판원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	268
공작새 왜 동남으로 날아가는가?	270
늘 처음처럼	274
년소득 12만원 이상, 개인자진납세신고 언제까지 썰렁?	277
“조화소비”와 “조화사회” 구축	281
주택구매계약시 홀시할수 없는 부대계약	283
“독두부”는 독하게 다스려야	286

특별기획편

오동이 푸르르니 봉황이 날아든다	293
-------------------------	-----

당신 하는 일 백성이 만족할가	301
장사도 천하지대본이다	312
전문시장 가져야 특색산업도 활성화된다	314
브랜드화, 시장화 시장경쟁력확보의 쌍날개	320
장사리념 확립하고 시장에 몸담아야	325
브랜드리념으로 시장경쟁력 키워야	331
정영채 그는 정녕 우리 연변사람이었다	335
전 주 식용균재배산업화순례	343
“검정모란”의 향기를 찾아서	344
만경창과 헤가르며 나아가는 “선두호”	349
“기함”의 기발 휘날리며 천군만마 통솔	355
전민의 힘을 모아 항공모함 구축해야	360

기행문

한국기행	367
생태미가 넘쳐흐르는 “청계천”	368
민속문화 경제발전의 디딤돌로	371
입으로 맛본 대구의 특색	374
자연이 아름다운 관광지—제주도	376

신문학론문

인민대중과 가깝게, 더 가깝게	381
국정, 국책 매편 보도기사에 체현시켜야	388
재정경제보도에 대한 몇가지 사고	392



달래아쭈마들 봄소식 듬뿍

“달래를 사세요, 햇달래를...”

봄별이 부르짖는 요즘 시장가에는 벌써 부지런한 농촌아쭈마들이 캐여온 달래보따리를 헤치고 부르는 싸구려소리가 귀맛당긴다. 22일 점심무렵, 서시장을 지나다 햇달래라는 말에 귀가 동해얼마냐고 물으니 0.5킬로그램에 6.00원이란다. 몇몇 다른 아쭈마들과 물었으나 가격은 매한가지였다.

“달래가 잘 팔리세요?”

“예. 어제도 스무나문근 잘 팔았습니다.”

오봉촌에서 왔다는 허영선내외의 가식 없는 대답이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안해가 장을 보고 남편은 들에 나가 달래를 캐군 한다는 허영선내외는 비닐하우스에 심어가꾼 민들레며 물쭈도 함께 갖고 나와 팔고있었다.

태양에서 왔다는 아쭈마도, 팔도에서 왔다는 아쭈마도 날마다 십여근씩 팔았다고 한다.

“작은 마늘”로 불리우는 달래는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맛을 가지고있는데 비장과 신장 기능을 돕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플 때 뭉친 기운을 밀으로 내리고 흩어지게 할뿐만아니라 양기를 보강하는 등 작용이 있어 남성에게 좋은 봄나물이라고 한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가운데 비타민C가 많아 체내의 호르몬분비를 조절하며 노화를 방지하고 저항력을 키워주며

빈혈과 동맥경화 예방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것으로 민간에 널리 알려져있다. 봄에 나른해지고 입맛이 없을 때 얼큰한 달래무침을 먹으면 식욕을 돋우고 정기를 회복하게 된다.

“달래 한근 주세요.”

이들 내외와 얘기 나누는 사이에도 벌써 여럿이 달래를 사갔다.

하루에 십여근씩 팔아도 60여원씩 수입할수 있는 셈이다. 팔도서 왔다는 한 아주머니는 어제도 남편이며 아들까지 동원되어 달래를 캐다면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기에 돈을 벌수 있다며 만족한 웃음을 내비쳤다. 보매 작은 달래장사도 부지런하게 하면 수입이 짝짤한것 같다.

이날 연길 북대시장에서도 기자는 연집에서, 도흥에서 온 달래장사 아줌마들의 웃음 땀 얼굴을 보았다.

(2004. 3. 24.)